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대선공약 건의

무주군, 설립지지 결의대회 갖고 대선 공약 반영돼 국가사업으로 추진 피력

무주군은 지난 20일 무주군 설천면 소재 태권도원 일여원에서 제20대 대선 공약 건의를 위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라북도태권도협회(이하 전북태권도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에 대선 공약에 반영돼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이병하 전북태권도협회 회장을 비롯한 14개 시·군 태권도협회 회장단 정진욱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 위원장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건의문 낭독·채택의 시간을 가졌다.

각 정당 및 제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될 예정인 건의문에는 세계 210개국 1억 5천만 명이 우리말로 인사와 수렴을 하고 있는 한류의 원조 태권도를 매개로 한 문화영토 확장, 국가경쟁력 강화, 세계평화·인류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위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각국에서 입학생을 모집해서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코치)를 양성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태권도 도약의 기반이자 전라북도 청년의 비상을 이끌 동력인만큼 제20대 대선 공약에 반영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병하 회장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이 지난달 제20대 대선 전북공약 제안사업으로 반영이 된 것 외에 대선공약의 반영에도 당당히 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관학교 설립이 정부 사업으로 추진이 될 때까지 무주군과 원 팀이 돼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사관학교 설립 지지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으로 4월에는 무주군민들로 구성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여론 형성 기반을 다지고 있다.

태권도계를 결집시키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2.4)과 국기원(3.9), 대한태권도협회(3.31),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8.12) 등과도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 6월 10일에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Again 태권도를 위한 U-프로젝트(이하 U-프로젝트)’로 명명한 정책 제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 의회 의장단협의회,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나서 사관학교 설립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7월 31일에는 정치권에 제20대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9월 10일에는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지지를 건의문을 채택, 각 정당 및 후보 측에 전달한 바 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은 진정한 의미의 태권도성지 완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전개 중”이라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태권도의 백년지계(百年之計)인만큼 대선공약에 반영이 되고 끝내 국가사업으로 추진·완성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출신 향우회, 고향 방문

서울·부산·대전·전주 향우회원 340여 명

무주군 출신 출향인사들이 주말을 맞아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고향인 무주군을 찾아 관광시설을 둘러보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사)무주군출향운동본부(본부장 김용봉)가 주최한 2021 무주군 각 지역 향우회 군민체육대회 참여 및 아사길 탐방 행사 차 340여명이 그리운 고향을 방문했다. 이들 향우회는 서울·부

산·대전·전주 소속 회원들로 짜여 졌다.

이들 지역 향우회 회원들은 으뜸관광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각 관광시설과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원, 머무와 인동굴 등을 찾아 20일과 21일 2일 동안 옛 추억을 더듬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들 출향민들의 무주방문을 반갑게 맞이했다.

고향방문 첫날인 20일 군민체육대회(무주군체육회 주관)가 진행된 반딧불체육관을 찾은 이들 일행은 출향군민소속으로 경기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가을철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뽑은 구천동어사길을 찾아 인월담에서 백련사까지 왕복 등반길에 오르기도 했다.

무주방문 이틀째인 21일 이들 일행은 태권도원을 찾아 국립태권도 박물관과 경기장 등을 관람했으며, 무주군 관광병소인 머무와인동굴을 관람하기도 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지난 18일 상하수도과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맺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홍보실을 시작으로 행정복지국, 보건소, 농촌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인촌환경국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과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순세제

일여금 발생 최소화 △필수 보직 기간 전보제 등 인사원칙 준수 △적극적인 원스톱 복합민원처리 추진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청년주거비 지원대상 확대 등을 지적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정옥주 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의 추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광수 의장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는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예산이 적절적소에 편성 될 수 있도록 남은 회기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의회는 2022년 예산안과 2021년도 제8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12월 17일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빈틈 없어야”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건강관리사 확충 등 시급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산모·신생아 관리지원사업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하고 수요자 시선에 맞춰 제도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제288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이 출산장려 시책으로 진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홍보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무주군이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전후의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일들을 대신 해준다. 산모는 5~25일 이내에서 원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의 90%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 위원장은 “2020년도 무주군 출생아가 99명이고 단순계산으로 한 달에 8명 가량 태어났다. 그런데 무주군은 출산도움이 3명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활동하는 분은 1명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산모가 지원을 받고 싶어도 도우미가 없어서 못 받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일을 하다 다른 산모를 보러 가야 한다고 중간에 그만두는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사례도 있었다”며 산모와 신생아가 제때 도움을 받기 위해 건강관리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지역 사정상 건강관리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주민이 건강관리사 대체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이 중단된 점이 있었고 홍보도 부족했던 것 같다”며 건강관리사를 충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여러 건강관리사 가운데 원하는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산모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무주군에서 산모들이 도움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무주군의 노력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기자

“기후변화 대응 농정체계 구축해야”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 벼 보급종 다변화 등 주문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이 올해 발생한 벼 도열병 발생에 따른 품종 다변화를 촉구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농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종종자 수집으로 확보된 토종씨앗을 무주의 농업자원으로 육성하고 치유농업에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

이해양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88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열병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무주군에는 대부분 신동진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도열병에 취약한 품종임이 드러났으며 품종 다변화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올해 기후가 고온다습해 도열병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었다. 신동진 벼가 도열병에 약한 품종이라 올해 병해를 계기로 품종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해양 의원은 “기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총체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농업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그리고 무주군이 올해 진행한 토종종자수집조사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질의하며 토종농업이 뿌리내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관심을 얻고 있는 치유농업에 대해서는 “치유농업은 치매환자 치료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돼 무주군의 여건상 필요한 농업의 형태다. 치유농업은 미래형 농업의 또 다른 시도가 될 수 있다”며 무주군이 치유농업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장수군이 산불방지기술협회 전북지부와 전라북도가 주최한 2021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는 아간 산불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장비사용 숙련도 산불진화 기계시스템 운영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장수군 장수를 싸래재 일원에서 열린 대회에는 전북 14개 시·군이 참가한 가운데 장수군이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경연은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장비 운용과 숙련도 향상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명이 한 팀을 이뤄 산불발생시 수인 확보 펌프 설치 물 공급, 진화활동까지의 경과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장수군은 대회에서 6분 53초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산불 진화를 완료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협약

진안군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센터장 김용태)와 (사)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전북협의회가 지난 1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다양한 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현재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진안군 마을만들기사업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마을 현장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전북협의회는 지역 단위 농촌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과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모델발굴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용태 센터장은 “각 단체 간 상호교류와 업무협약을 통해 모범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